보도자료

대한민국 서울 — 2024 년 7 월 18 일

다쏘시스템 아웃스케일, 쿠버네티스 전문 기업 '새틀라이즈' 전략적 인수... "신규 쿠버네티스 서비스 도입해 클라우드 분야 선도할 것"

- **아웃스케일, 사이버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전환 선두기업 새틀라이즈 인수해 기술 리더 입지 강화**
- **새틀라이즈, 보안성 높은 쿠버네티스 솔루션 통해 아웃스케일 매니지드 서비스 강화... 기업 및 기관 유연성과 효율성 증가에 기여할 것**

대한민국 서울, 2024 년 7 월 18 일 - 다쏘시스템(https://www.3ds.com/ko/)의 아웃스케일(OUTSCALE)이 24 시간 관리 전문성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전문 기업 새틀라이즈(Satelliz)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략적 인수로 아웃스케일은 쿠버네티스를 통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새로운 역량을 갖춰 클라우드 기술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아웃스케일은 새틀라이즈와 함께 가용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통합해 확장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대 기업의 유연성, 효율성 및 보안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한다. 새틀라이즈의 기술을 통합하며 아웃스케일은 24 시간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규 쿠버네티스 기술: 가속하는 클라우드 전환을 향해

새틀라이즈 인수를 통해 아웃스케일은 고객이 기존처럼 복잡하게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민첩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웃스케일의 전문성과 결합한 새틀라이즈의 매니지드 솔루션을 사용하면 동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6 년까지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75%가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 년의 5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쿠버네티스가 필수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용자를 위한 향상된 민첩성과 보안

이번 인수에 따라 고객은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이용해 현재의 확장성과 고가용성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워크로드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필립 마틴(Philippe Miltin) 다쏘시스템 아웃스케일 CEO 는 "이러한 역량은 혁신을 추구하고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웃스케일의 쿠버네티스 최적화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벤더의 컨테이너화된 제품을 지원할 필요성을 충족해 새로운 통합과 협업 가능성에 대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접근 방식은 최적의 성능과 전례 없는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유럽의 데이터 주권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라고 말했다.

탁월함과 혁신에 대한 의지

이번 인수는 안전하고 주권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쏘시스템의 장기 전략에 부합한다. 새틀라이즈의 솔루션을 통합함으로써 아웃스케일은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이버 거버넌스를 촉진하며,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3D 설계 소프트웨어, 3D 디지털 목업 (DMU)과 제품 PLM 솔루션: https://www.3ds.com/ko/

다쏘시스템코리아 소셜채널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3D 가상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2만 명의 직원이 140여 개국에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30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3ds.com